수완지구에 꼴불견 표지석

바르게살기협, 토공·市 협의 없이 무단 설치

주민들 "경관 해친다" 거센 반발·철거 요구

'바르게 살기 광산구협의회'가 광주 도심 근린공원에 단체 홍보 문구가 담긴 표지석을 임의대로 설치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곳을 자주 이용하는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은 "주변 경관(景觀)을 해치고 시대착오적인 조형물"이라며 표지석 철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10일 광주시 광산구에 따르면 '바르게 살기 광산구협의회'는 지난달 14일 광산구 수완동 풍영정 천변 근린공원 내에 '바르게 살자'라는 구호와 협회 이름을 새긴 높이 3.8m, 폭 4m 크기의 표지석을 설치했다.

또 표지석 주변에는 '바르게 살기 협의회'라고 적힌 높이 8m의 기(旗)와 태극기 15개를 설치했다가 주민들의 지적을 받고 철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표지석은 근린 공원을 조성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토공) 측과 사전 협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땅 소유주인 광주시로부터 점용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도시공원 점용허가)상 도시공원 안에 공원 시설 외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설치하려면 관리 주체인 해당 기초자치단체장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처럼 표지석이 무단 설치된데 대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표지석 철거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설치물을 관리 감독해야 할 광산구는 그동안 "관리 주체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소극적인 자세로 대처해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인근 아파트 주민 김모(35)씨는 "60~70년대에나 어울릴 법한 비석을 21세기 광주 도심 근린공원에 임의대로 세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바르게 살기 광산구 협의회'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표지석을 세웠다"며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바르게 살기 광산구협의회'가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 풍영정천변 근린공원 내에 설치한 높이 3.8m, 폭 4m 크기의 표지석. 관계 당국과 사전 협의 없이 설치한 것으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동광주나들목 폐쇄

내일부터 6월까지 … 동광주~고서 확장공사로

동광주나들목이 12일 오전 11시부터 '동광주~담양 고서 간 확장공사' 때문에 완전 폐쇄된다. 단 서울·대전 방향에서 광주시내로의 진입은 가능하다. 지난해 말 문흥나들목 개통과 함께 동광주나들목의 순천방향 진·출입로가 폐쇄된 바 있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에서 추진중인 '동광주~담양 고서 간 확장공사'로 인해 동광주나들목 서울·대전방향 진출로가 오는 12일부터 6월 말까지 일시 폐쇄된다. 이에 따라 현재 동광주나들목을 이용해 고속도로로 진입해왔던 차량은 동문로 담양 방면(국도 29호선) 도동고개 삼거리에서 문흥나들목을 이용해야 고속도로에 들어설 수 있다.

동문로를 이용할 경우에는 담양방면(국도 29호선) 도동고개 삼거리 지점에서 제2순환도로로, 두암·화순방면에서 제2순환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문흥나들목을 통해 곧바로 고속도로에 진입할 수 있다.

다만 6월 말까지 문흥나들목을 통해 서울·대전 방향에서 광주시내로 들어올 수 없다.

동광주IC 폐쇄현황

광주시 관계자는 "동광주나들목을 이용해 서울·대전 방향 고속도로로 진출하던 통행자들의 혼선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고속도로 진출입 지역과 주요노선의 도로표지판을 정비하고, 플래카드 설치와 전단지 배포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하고 있다"며 "확장공사 완료시점까지는 동문로 문흥나들목 주변의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제2순환도로 무료구간인 두암나들목이나 호남고속도로 서광주 나들목을 이용해 교통혼잡을 줄일 수 있도록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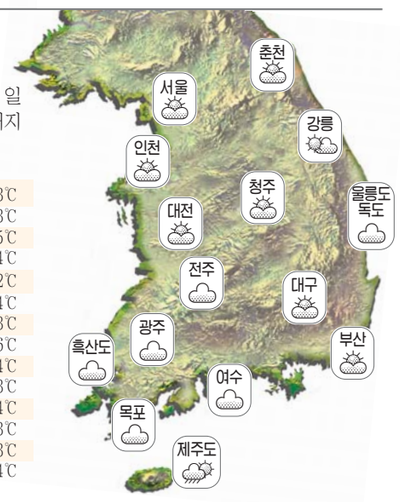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7시 41분 해짐 17시 39분 달뜸 04시 16분 달짐 14시 05분

내일부터 다시 눈

대체로 흐리겠으며 남해안 일부 섬지역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광 주	흐림	-1/3℃
목 포	흐림	-1/3℃
여 수	흐림	1/5℃
완 도	흐림	0/4℃
구 례	흐림	-2/2℃
해 남	흐림	-2/4℃
장 흥	흐림	-2/3℃
고 흥	흐림	0/6℃
순 천	흐림	0/4℃
영 광	흐림	-3/3℃
진 도	흐림	0/4℃
전 주	흐림	-4/3℃
남 원	흐림	-5/3℃
흑산도	흐림	2/4℃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5m
먼바다	북~북동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	0.5~1.5m
먼바다	북~북동	1.0~2.5m

체감온도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관심	낮음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1.0~2.5m
먼바다	북서~북	2.0~3.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0~2.0m
먼바다	북서~북	2.0~3.0m

	밀물	썰물
목포	11:43 23:31	04:04 17:19
여수	07:03 18:45	13:09 --:--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2(화)	13(수)	14(목)	15(금)	16(토)	17(일)
날 씨						
최저/최고	-4/1	-7/-1	-6/2	-2/5	-4/6	-3/6

2~3시간 뒤 위험 기상 알려준다

초단기예보 시범 서비스

이르면 올 여름부터 2~3시간 뒤에 발생할 위험기상을 알려주는 초단기예보 시범 서비스가 실시되고 레이더 자료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레이더운영센터도 설립된다. 하반기부터는 동네예보를 휴대전화와 케이블TV, IP-TV 등을 통해서도 접할 수 있게 된다.

기상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 기상정책 추진계획'을 확정, 10일 발표했다.

기상청은 먼저 고품질의 레이더 자료 확보를 통한 초단기예보 정확도를 높이려고 6월께 기상레이더 운영을 총괄하는 '레이더운영센터'를 설립하고 5㎢ 지역을 상대로 2~3시간 뒤의 1시간 면적 강수량 정보를 제공하는 초단기예보 시범 서비스를 여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동장군 다시 맹위

광주·전남 내일 모레 폭설 영하 7도까지

지난 주말과 휴일 추위가 주춤했던 광주·전남지역은 12~13일 다소 많은 양의 눈과 함께 또 다시 추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1일 광주·전남은 대체로 흐리겠으며, 12일 오전부터 눈이 내릴 것"이라고 10일 예보했다.

이번 눈은 13일까지 이어지겠으며 기온까지 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건강 관리와 함께 시설물 관리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11일 광주의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도, 영상 3도에서 ▲12일 영하 4도, 영상 1도 ▲13일 영하 7도, 영하 1도 ▲14일 영하 6도, 영상 2도로 떨어지겠다. 기상청은 15일부터 추위가 다소 풀릴 것으로 내다봤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호남대도 등록금 동결

대학 등록금 동결을 요구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호남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광주·전남지역 4년제 대학 중 조선대와 호남대 등 2곳이, 전문대는 조선이공대·동강대·고구려대 등 3곳이 등록금 동결에 참여했다.

호남대는 10일 "올해 1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정부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ICL)' 시행이 불투명해지면서 등록금 부담이 어느 때보다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작년에 이어 2010학년도 등록금도 동결한다"고 밝혔다.

호남대는 "등록금 동결과 무관하게 그동안 마련했던 다양한 장학제도도 확대하겠다"며 "지난해 말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에서 우수사례대학으로 선정돼 받은 인센티브도 장학금 프로그램에 쓰고 있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